

국내 전문대학교 문헌정보과에 진학하는 학생들의 전공 선택요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Factors Influencing the Choice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as a Major among College Students

장로사 (Rosa Chang)*

초 록

본 연구는 국내 전문대학교 문헌정보과에 진학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전공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개인 요인, 가정 요인, 고등학교 요인, 대학교 요인, 사회 요인)을 통계적으로 검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 요인과 사회 요인이 전문대학교 문헌정보과 전공 선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사회 요인보다 개인 요인이 전문대학교 문헌정보과 전공 선택에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개인 요인은 전문대학교 문헌정보과 전공 선택에 유의미한 정적(+)인 영향을 주는 반면에 사회 요인은 전문대학교 문헌정보과 전공 선택에 유의미한 부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국내 전문대학교 문헌정보과들이 대학입학자원의 감소에 대비하기 위한 유용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statistically examined the factors (individual factors, family factors, high school factors, college factors, and social factors) that affect the choice of the major by surveying with students who have entered the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departments of colleges in Korea.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it was confirmed that individual factors and social factors had significant effects on the choice of the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major in college. Second, it was found that individual factors had a greater influence on the choice of the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major than social factors do. Third, individual factors had significant positive(+) effects on the choice of the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major at colleges, whereas it was verified that social factors had significant negative(-) effects on the choice of the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major at colleges. The findings of this study can be used as useful basic data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departments of colleges in Korea to prepare for a decrease in the number of college entrants in the coming years.

키워드: 전문대학교, 문헌정보과, 전공 선택

college, department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major choice

* 숭의여자대학교 문헌정보과 조교수(rschang120@sewc.ac.kr)

■ 논문접수일자: 2021년 11월 11일 ■ 최초심사일자: 2021년 12월 3일 ■ 게재확정일자: 2021년 12월 18일
■ 정보관리학회지, 38(4), 47-64, 2021. <http://dx.doi.org/10.3743/KOSIM.2021.38.4.047>

※ Copyright © 2021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atives 4.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 which permits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at the article is properly cited, the use is non-commercial and no modifications or adaptations are made.

1. 서론

현재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인구지형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특히 학령인구가 급감함에 따라 신입생 충원에 직격타를 맞게 되면서 대학의 위기는 본격화되고 있다. 실제로 사상 초유의 신입생 증발 사태로 인해 2021학년도 전체 대학의 신입생 충원율은 91.4%로서 미충원 인원이 4만 586명에 이르렀으며, 지방대학과 전문대학의 타격은 더욱 컸다(국회입법조사처, 2021).

또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앞으로 만 18세 학령인구는 매년 감소하여 2024년에는 43만 명, 2040년에는 2021년 현재의 절반인 28만 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강신철, 2021). 즉 지금의 학령인구 감소는 시작에 불과하며, 대학사회는 무엇보다 2024년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시급하게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21학년도 대학입학정원이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2024년에는 신입생 미달 인원이 무려 10만 명에 달함으로써 대학 존폐의 갈림길에 서게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견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내 학계에서는 교육학과에서 주로 고등학교 학생이나 대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대학 전공 결정요인을 검증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외에 다양한 학문 분야마다 각 전공을 중심으로 하여 학생들이 해당 학과를 선택하는 요인을 규명한 연구들도 수행되고 있다. 대학 전공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로서 정정화, 노보람(2019)은 사회적 평판 및 성적 요인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게다가 대학 간호학 전공에 포커스를 두고 전공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 한수정, 김미란(2017)의 연구에서는 보건교사와의 관계, 학교 내외 진로활동 경험, 전문가 상담 및 교육 경험 등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아직까지 문헌정보학계에서 국내 전문대학교 문헌정보과를 중심으로 하여 진학하는 학생들의 전공 선택요인을 규명한 연구는 수행되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전문대학교 문헌정보과에 진학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과연 5가지 요인(개인 요인, 가정 요인, 고등학교 요인, 대학교 요인, 사회 요인) 중에서 전공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통계적으로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전문대학교 문헌정보과에 초점을 맞춘 연구이기에 4년제 문헌정보과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미래연구로서 4년제 문헌정보학과를 진학하는 학생들의 전공 선택요인을 규명하는 연구를 제안한다. 또한 다각적인 차원에서의 후속연구로서 주간반과 야간반을 구분하여 전문대학교 문헌정보과에 진학하는 학생들의 전공 선택요인을 검증하는 연구, 전문대학교 내 다른 학과와 문헌정보과 간의 전공적 특성을 비교·분석함으로써 타 학과와는 차별화된 전문대학교 문헌정보과만의 학령인구 급감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연구를 제안한다.

본 연구의 기대효과는 향후 국내 전문대학교 문헌정보과들이 대학입학자원의 감소에 대비하기 위한 유용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본 연구가 각 대학 및 학과에 잘 전달되어 우리나라 전문대학교 문헌정보과의 발전 및 새로운 도약을 위해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 선행연구

선행연구 파트는 국내에서 수행된 진로, 대학 및 전공 선택요인 관련 연구를 살펴보았으며, 이를 토대로 본 연구에 적합한 전문대학교 문헌정보과에 진학하는 학생들의 전공 선택요인을 선정하였다.

먼저 박성미(2003)는 4년제 대학에 입학한 지 1개월 된 신입생 총 331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진로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경로 및 인과관계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유전적 요인, 환경적 조건, 과제접근기술 변인들은 진로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수도권 지역의 중·고등학교 학생 및 학부모 총 736명을 모집단으로 하여 과학 관련 진로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 손은정, 우애자(2003)의 연구가 있다. 검증결과, 과학 관련 진로선택 요인 중 과학에 대한 선호, 과학 교사의 영향, 학교 안 과학 관련 경험, 학교 밖 과학 관련 경험요인은 과학 관련 진로 희망 여부와 비교적 높은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규명되었다.

2009년에는 과학고 및 외국어고등학교 학생 총 457명을 대상으로 하여 특수목적고등학교 학생들의 대학 전공계열 진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힌 이수영, 이영민, 이제훈(2009)의 연구가 수행되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첫째, 교내·외 수상 경험이 있는 학생, 과학교과의 효능감이 높을수록 대학에서 동일계열로 진학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진로 및 적성을 조언하는 교사가 있고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대학에서 동일계열로 진학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후 이상준(2011)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한국교육고용패널(Korean Education & Employment Panel) 데이터를 활용하여 일반계 및 전문계 고등학교 3학년 총 1,219명을 모집단으로 선정하였다. 진로교육 참여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에서 직업체험과 진로상담 및 학과정보 안내에서 교사들의 조언과 학생들 간의 친밀감이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50개교 학생 및 학부모 각 2,558명 총 5,116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지방 소재 고등학생들의 대학진학 포부에 있어 지역선택 결정요인을 규명한 박상은, 서봉언(2017)의 연구가 있다. 조사결과, 첫째, 지방 4년제보다 서울 4년제 대학진학 포부집단에서 부모의 학력, 월평균 가구소득, 사회 자본, 문화 자본 등에서 평균이 더 높고, 학생의 자기효능감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서울 4년제 대학 희망 집단의 이항 로지스틱 다층분석결과에서 부모 학력, 부모 진로 영향력, 학업 성취, 자기효능감 등의 개인 수준 변수와 자사고 재학 여부, 학교 평균 교사 열의 및 성취압력이 유의미한 변수로 검증되었다.

또한 한수정, 김미란(2017)은 대전 충청지역에 소재한 고등학교 3학년 총 145명을 모집단으로 하여 진로를 간호학 전공으로 선택하는 요인에 대해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간호대학 지원 결정요인은 보건교사와의 관계가 긍정적인 경우, 학교 내외에서 간호 관련 진로 및 봉사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경우, 학교 진로 관련 수업을 수강한 경험이 있는 경우, 전문가 상담 및 교육 경험이 있는 경우로 밝혀졌다.

최근에 수행된 연구로서 손은희, 이신혜(2019)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 데이터를 토대로 대학교에 진학한 총 1,348명의 학생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진로정체감과 공변인과의 관계를 검증한 결과에서 개인, 가정, 학교 수준의 변수 중 성별, 직업 체험활동 참여, 교우 관계가 진로정체감의 잠재 프로파일 소속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근래에 대학 1학년을 대상으로 하여 대학 전공 선택 동기 차이를 파악한 정정화, 노보람(2019)의 연구가 수행되었다. 검증결과, 사회적 평판 및 성적 요인은 대학 전공 선택 시에

영향을 미치는 동기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청소년기의 진로정체감 발달 양상이 실제적으로 진로선택 행동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위의 국내 선행연구들에서 선정한 진로, 대학 및 전공 선택요인을 종합정리하면 <표 1>과 같다.

선행연구를 토대로 도출한 시사점을 살펴보면, 교육학 분야를 중심으로 하여 전공, 대학 및 전공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힌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그

<표 1> 선행연구별 진로, 대학 및 전공 선택요인

연구자(연도)	진로, 대학 및 전공 선택요인
박성미 (2003)	① 유전적 요인(성별, 신체적 능력, 예술적 재능 등), ② 환경적 조건(취업 가능한 직종의 내용, 교육 훈련이 가능한 분야, 사회정책, 노동법 등), ③ 학습경험(도구적 학습경험, 연합적 학습경험, 대리경험 등), ④ 과제접근기술(문제인식능력, 의사결정능력, 직업정보수집능력, 정보변별능력 등)
손은정, 우애자 (2003)	[학생용] ① 개인적 요인(성별, 과학에 대한 선호), ② 학교 요인(과학 교사, 학교 안 과학 관련 경험), ③ 사회·문화적 요인(과학과 관련된 직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과학 교과에 대한 진학의 유리), ④ 경험적 요인(학교 밖 과학 관련 경험) [학부모용] ① 가정 요인(부모의 직업, 학력, 자녀에게 권하는 직업 분야 등)
이수영, 이영민, 이제훈 (2009)	① 학생특성(성별, 일에 대한 효능감, 결단성, 진학유형: 미결정·타계열·동일계열), ② 고교특성(고교유형: 외국어고·과학고, 고교소재지: 광역 대도시·시군지역), ③ 교과 흥미(국어·수학·영어·과학·사회 교과 효능감), ④ 학업성취(내신성적등급, 교내·외 수상 경험), ⑤ 학교생활(수업 태도, 학교생활 만족도), ⑥ 학교진로지도(적성과 진로에 관심을 갖는 교사, 존경하는 교사, 좋아하는 교사), ⑦ 학습형태(사교육 경험 여부, 혼자 학습시간)
이상준 (2011)	① 진로 수업(진로 과목), ② 진로강연, ③ 학교 및 학과안내, ④ 적성흥미검사, ⑤ 직업체험, ⑥ 진로상담
박상은, 서봉언 (2017)	[1수준] ① 가정배경특성(부모의 학력, 가정진로활동 경험, 부모의 교육관, 진로에 대한 영향력 등), 학생특성(성별, 국어·영어·수학 성적, 자기효능감, 진로계획성, 동아리 경험 여부, 대학진학 이유 등), [2수준] ③ 학교 배경 및 여건(공학 여부, 특목고·자사고·일반고 등), ④ 학교교육활동(수업 분위기, 교사 열의, 교사의 성취압력, 학교진로교육경험)
한수정, 김미란 (2017)	① 교사와의 관계, ② 보건교사와의 관계, ③ 간호 관련 학교 경험, ④ 경험적 요인, ⑤ 사회적 요인, ⑥ 부모와의 관계, ⑦ 진로선택과 가정에서의 진로지도 경험
손윤희, 이신혜 (2019)	① 개인 요인(성별, 사전성취도: 국어·영어·수학 과목 성적에 대한 주관적 평가, 성취가치: 학교 공부에 삶에 지니는 의미, 직업체험활동 참여 등) ② 가정 요인(로그가구소득: 가구의 연간 소득(단위: 만원)을 로그변환한 값, 모학력 변수: 어머니 또는 여성 보호자의 최종학력을 교육연수로 변환한 값), ③ 학교 요인(교우 관계, 교사 관계)
정정화, 노보람 (2019)	① 사회적 평판, ② 졸업 후 취업 전망, ③ 부모님의 권유, ④ 친구 또는 친지의 권유, ⑤ 학교 선생님의 권유, ⑥ 자신의 관심과 적성, ⑦ 자신의 성적

리나 아직까지 문헌정보과 전공에 초점을 맞춰 국내 전문대학교 문헌정보과에 진학하는 학생들의 대학 및 전공 선택요인을 규명한 연구는 수행되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문대학교 문헌정보과에 진학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대학 및 전공 선택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검증하였다. 이는 국내 전문대학교 문헌정보과들이 향후 학령인구 급감에 대비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연구 설계

본 장에서는 전문대학교 문헌정보과에 진학하는 학생들의 전공 선택요인을 검증하기 위한 연구모형 및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또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항목을 확립하였으며, 설문대상과 설문지 구성에 관하여 설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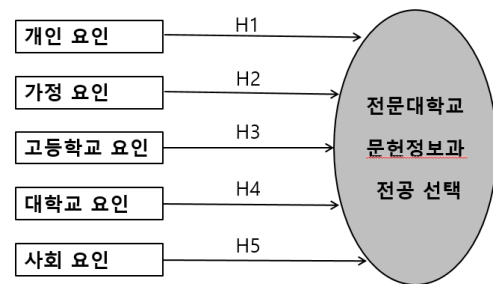
3.1 연구모형 및 가설설정

2장에서 살펴본 선행연구들에서 선정한 진로, 대학 및 전공 선택요인을 바탕으로 하여 본 연구에 적합한 전문대학교 문헌정보과에 진학하는 학생들의 전공 선택요인을 확립하였다.

본 연구에서 선정한 전문대학교 문헌정보과 전공에 대한 선택요인은 크게 5가지(개인 요인, 가정 요인, 고등학교 요인, 대학교 요인, 사회 요인)로 구분하였으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 요인은 성별, 나이, 적성, 성적, 진로계획을 포함하였으며, 둘째, 가정 요인은 부모의 학력, 부모의 직업, 자녀에게 추천

하는 직업, 가정진로활동 경험으로 설정하였다. 셋째, 고등학교 요인으로는 사서교사, 담임교사, 친구, 진로상담, 학교진로교육 경험, 독서 및 도서관 동아리 경험을 추출하였으며, 넷째, 대학교 요인으로는 대학 및 전공 안내자료 팸플릿, 대학 및 학과 주최 진로직업체험 경험, 입시박람회, 대학 및 학과 홈페이지를 선정하였다. 다섯째, 사회 요인은 사회정책, 사회적 평판, 취업 전망을 포함하였다.

본 연구에서 선정한 5가지(개인 요인, 가정 요인, 고등학교 요인, 대학교 요인, 사회 요인)의 요인 중에서 전문대학교 문헌정보과 전공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통계적으로 검증하고자 하며, 연구모형을 도식화하면 <그림 1>과 같다. 또한 본 연구의 가설은 총 5개로서 이를 종합하여 제시하면 <표 2>와 같다.



<그림 1> 연구모형

3.2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항목

본 연구에서 설정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조작적 정의(Operational definition) 및 측정항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본 연구의 변수는 5개의 독립변수와 1개의 종속변수로 구성되었으며, 이들의 조작적 정의

〈표 2〉 연구가설

가설항목	가설내용
H.1	개인 요인은 전문대학교 문헌정보과 전공 선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	가정 요인은 전문대학교 문헌정보과 전공 선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	고등학교 요인은 전문대학교 문헌정보과 전공 선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4	대학교 요인은 전문대학교 문헌정보과 전공 선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5	사회 요인은 전문대학교 문헌정보과 전공 선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표 3〉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항목

변수	조작적 정의	측정항목	참고문헌	
독립 변수	개인 요인	성별이 전문대 문헌정보과 전공 선택에 미치는 영향력 정도	박성미(2003), 손은정·우애자(2003), 이수영·이영민·이제훈(2009), 박상은·서봉언(2017), 손윤희·이신혜(2019)	
		나이가 전문대 문헌정보과 전공 선택에 미치는 영향력 정도	본 연구	
		적성이 전문대 문헌정보과 전공 선택에 미치는 영향력 정도	이상준(2011)	
		성적이 전문대 문헌정보과 전공 선택에 미치는 영향력 정도	이수영·이영민·이제훈(2009), 박상은·서봉언(2017), 손윤희·이신혜(2019), 정정화·노보람(2019)	
		진로계획이 전문대 문헌정보과 전공 선택에 미치는 영향력 정도	박상은·서봉언(2017)	
	가정 요인	가정 요인이 전문대 문헌정보과 전공 선택에 미치는 영향력 정도	부모의 학력이 전문대 문헌정보과 전공 선택에 미치는 영향력 정도	손은정·우애자(2003), 박상은·서봉언(2017), 손윤희·이신혜(2019)
			부모의 직업이 전문대 문헌정보과 전공 선택에 미치는 영향력 정도	손은정·우애자(2003)
			자녀에게 원하는 직업이 전문대 문헌정보과 전공 선택에 미치는 영향력 정도	손은정·우애자(2003), 정정화·노보람(2019)
			가정진로활동 경험이 전문대 문헌정보과 전공 선택에 미치는 영향력 정도	박상은·서봉언(2017), 한수정·김미란(2017)
	고등학교 요인	고등학교 요인이 전문대 문헌정보과 전공 선택에 미치는 영향력 정도	사서교사가 전문대 문헌정보과 전공 선택에 미치는 영향력 정도	손은정·우애자(2003), 한수정·김미란(2017) 참조
			담임교사가 전문대 문헌정보과 전공 선택에 미치는 영향력 정도	한수정·김미란(2017), 정정화·노보람(2019)
			친구가 전문대 문헌정보과 전공 선택에 미치는 영향력 정도	정정화·노보람(2019)
진로상담이 전문대 문헌정보과 전공 선택에 미치는 영향력 정도			이상준(2011)	

변수	조작적 정의	측정항목	참고문헌
독립 변수	고등학교 요인	학교진로교육 경험이 전문대 문헌정보과 전공 선택에 미치는 영향력 정도	손은정·우애자(2003), 이상준(2011), 박상은·서봉연(2017), 한수정·김미란(2017)
		독서 및 도서관 동아리 경험이 전문대 문헌정보과 전공 선택에 미치는 영향력 정도	박상은·서봉연(2017) 참조
	대학교 요인	대학교 요인이 전문대 문헌정보과 전공 선택에 미치는 영향력 정도	대학 및 전공 안내자료 팸플렛이 전문대 문헌정보과 전공 선택에 미치는 영향력 정도 이상준(2011) 대학 및 학과에서 주최하는 진로직업체험 경험이 전문대 문헌정보과 전공 선택에 미치는 영향력 정도 이상준(2011) 대학 및 학과에서 주최하는 입시박람회가 전문대 문헌정보과 전공 선택에 미치는 영향력 정도 본 연구 대학 및 학과 홈페이지가 전문대 문헌정보과 전공 선택에 미치는 영향력 정도 본 연구
종속 변수	사회 요인	사회정책이 전문대 문헌정보과 전공 선택에 미치는 영향력 정도	박성미(2003)
		사회적 평판이 전문대 문헌정보과 전공 선택에 미치는 영향력 정도	손은정·우애자(2003), 정정화·노보람(2019)
		취업전망이 전문대 문헌정보과 전공 선택에 미치는 영향력 정도	박성미(2003), 정정화·노보람(2019)
종속 변수	전문대 문헌정보과 전공 선택	전문대 문헌정보과 전공을 좋아하는 욕구의 정도	손은정·우애자(2003), 이수영·이영민·이제훈(2009), 한수정·김미란(2017), 손윤희·이신혜(2019) 참조
		전문대 문헌정보과 전공 선택에 대한 의지의 정도	
		전문대 문헌정보과 전공 선택에 대한 확신의 정도	

및 측정항목은 모두 관련 연구들을 근거로 하여 설정되었다.

3.3 연구대상 및 설문 구성

본 연구는 전문대학교 문헌정보과에 진학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021년 9월을 기준으로 국내에 문헌정보과가 개설된 총 5곳(대림대, 명지전문대, 부산여자대,

승의여대, 창원문성대)의 전문대를 모집단으로 설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설문 기간은 2021년 9월 3일부터 10월 10일까지 약 1달 동안 이루어졌으며, 설문 방법은 온라인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총 227부가 회수되었으며, 이들 중 불성실한 응답자 및 결측값을 제외하고 총 204부를 최종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인구통계학적 문항을 제외한 모든 설문 문항

은 리커트(Likert)형 5점 척도로 설계되었다. 설문 구성은 크게 7개의 섹션으로 나누었으며, 문항은 총 27개로 구성하였다. 구체적으로 설문지의 구성을 살펴보면, 첫 번째 섹션은 기초 조사로서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설문으로서 총 2개의 문항을 수록하였다. 두 번째 섹션은 개인 요인에 관한 설문으로서 총 5개의 문항, 세 번째 섹션은 가정 요인에 대한 설문으로서 총 4개의 문항을 포함하였다. 네 번째 섹션은 고등학교 요인에 관한 설문으로서 총 6개의 문항, 다섯 번째 섹션은 대학교 요인에 대한 설문으로서 총 4개의 문항으로 분류하였다. 여섯 번째 섹션은 사회 요인에 관한 설문으로서 총 3개의 문항, 일곱 번째 섹션은 전문대학교 문헌정보과 전공 선택에 대한 설문으로서 총 3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4. 분석결과 및 가설검증

본 연구에서는 회수된 설문지의 통계처리를 데이터 코딩 과정을 거친 후에 SPSS(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 22.0 Korean Version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가설을 검증하였다. 구체적인 실증분석 방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설문 응답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일반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둘째, 측정도구들에 대한 정규성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설문 항목들에 대한 개념적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Factor Analysis)

을 실시하였으며, 측정 변수들의 내적 일관성을 검증하기 위해 신뢰도 분석(Reliability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넷째, 각 측정변수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이변량 상관관계 분석(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가설검증을 위해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4.1 인구통계학적 분석

빈도분석을 통해 설문 응답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및 일반적 특성을 조사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먼저 응답자의 성별은 남학생이 23명으로서 11.3%이며, 여학생이 181명으로서 88.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더 높은 설문참여율을 보여주었다.

또한 연령별로는 만18-29세가 153명(75.0%)으로 가장 높은 설문참여율을 보여주었다. 다음으로 만50-59세가 19명(9.3%), 만40-49세가 14명(6.9%), 만60세 이상이 10명(4.9%), 만30-39세가 8명(3.9%) 순으로 확인되었다. 만50세 이상의 만학도 학생의 비율이 29명으로서 14.2%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된 점이 주목된다.

4.2 기술통계 분석

왜도 및 첨도 기준을 통해 본 연구에서 사용한 요인들이 정규분포(normal distribution)를 이루고 있는지 살펴보았으며,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왜도(skewness)는 자료의 분포 모양이 어

〈표 4〉 인구통계학적 분석

설문항목		빈도	비율(%)
성별	남	23	11.3
	여	181	88.7
연령별	만18-29세	153	75.0
	만30-39세	8	3.9
	만40-49세	14	6.9
	만50-59세	19	9.3
	만60세 이상	10	4.9

〈표 5〉 기술통계 분석

요인명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개인 요인	3.00	5.00	4.12	0.54	.128	-.590
가정 요인	2.33	5.00	3.46	0.66	.844	.317
고등학교 요인	3.00	5.00	3.92	0.60	.213	-.945
대학교 요인	2.67	4.67	3.63	0.60	.295	-1.084
사회 요인	2.67	5.00	3.85	0.65	.284	-.955
전공 선택	3.00	5.00	4.11	0.63	-.101	-.808

는 쪽으로 얼마만큼 기울어져 있는가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왜도의 절대값이 1보다 큰 경우에는 정규분포에서 크게 벗어난 것으로 판단한다(성도경 외, 2011).

또한 첨도(kurtosis)는 자료의 분포 모양이 위로 뾰족한 정도를 말하며, 첨도의 절대값이 7보다 작으면 정상분포를 이루는 것으로 간주한다(성도경 외, 2011).

이러한 기준에서 본 연구에서 사용한 데이터들은 모두 왜도 및 첨도 기준을 충족시켜 정규분포를 가정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4.3 타당성 및 신뢰도 검증

본 연구에서 가설의 검증결과에 대한 타당성을 입증하고자 SPSS 22.0K를 활용하여 탐색

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추출 방법은 주성분 추출방법을 이용하였고, 요인회전 방법은 직교회전 방식의 하나인 Varimax회전을 수행하였으며, 요인분석 시 다른 요인에 적재되거나 요인 적재량이 0.4 미만인 항목은 제외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에서 변수들에 대한 아이겐값(Eigen-value)이 1.0을 상회하고 있으면 변수들이 명확히 분류된 것으로 간주하며, 누적분산의 적재치가 0.4보다 크게 나타나면 동일요인의 측정변수 간의 집중타당성과 판별타당성이 확보된 것으로 판단한다.

본 연구에서 선정한 요인(개인 요인, 가정 요인, 고등학교 요인, 대학교 요인, 사회 요인, 전문대학교 문헌정보과 전공 선택 요인)의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6개로서 〈표 6〉과

〈표 6〉 탐색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설문항목	성분					
	1	2	3	4	5	6
전공 선택2	.959					
전공 선택3	.938					
전공 선택1	.818					
대학교 요인3		.891				
대학교 요인2		.811				
대학교 요인1		.770				
사회 요인1			.873			
사회 요인3			.808			
사회 요인2			.770			
가정 요인2				.888		
가정 요인1				.848		
가정 요인3				.687		
고등학교 요인2					.836	
고등학교 요인1					.821	
고등학교 요인4					.480	
개인 요인5						.838
개인 요인3						.661
개인 요인4						.470
Eigen-value	2.793	2.448	2.362	2.299	1.991	1.934
설명분산(%)	15.515	13.601	13.123	12.772	11.064	10.746
누적분산(%)	15.515	29.116	42.240	55.012	66.075	76.821
Cronbach Alpha	.920	.802	.812	.805	.711	.712

같이 추출되었다. 이 표에 의하면, 아이겐 값은 1.934에서 2.793으로 모두가 1.0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모든 변수들이 명확히 분류되었다. 누적분산은 76.821%로 나타나 동일 요인의 측정변수 간의 집중타당성과 판별타당성이 확보된 것으로 검증되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문대학교 문헌정보과 전공 선택의 경우, 모두 3개의 관련 문항(전문대학교 문헌정보과 전공을 좋아하는 욕구, 전문대 문헌정보과 전공 선택에 대한 의지, 전문대 문헌정보과 전공 선택에 대한 확신)들로 구성되었으

며, 아이겐 값은 2.793, 설명분산은 15.515%로 나타나 전문대학교 문헌정보과 전공 선택 요인으로 최종 선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둘째, 대학교 요인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의 결과에 의하면, 모두 3개의 관련 문항(대학 및 전공 안내자료 팸플렛, 대학 및 학과에서 주최하는 진로직업체험 경험, 대학 및 학과에서 주최하는 입시박람회)들로 구성되었으며, 아이겐 값은 2.448, 설명분산은 13.601%로 확인됨으로써 최종적인 대학교 요인으로 선정되었다.

셋째, 사회 요인의 경우, 모두 3개의 관련 문항

(사회정책, 사회적 평판, 취업 전망)으로 구성되었으며, 아이겐 값은 2.362, 설명분산은 13.123%로 나타나 사회 요인으로 최종 선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넷째, 가정 요인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의 결과, 3개의 관련 문항(부모의 학력, 부모의 직업, 부모가 자녀에게 권하는 직업)으로 구성되었으며, 아이겐 값은 2.299, 설명분산은 12.772%로 검증됨으로써 최종 가정 요인으로 선정되었다.

다섯째, 고등학교 요인의 경우, 3개의 관련 문항(사서교사, 담임교사, 진로상담)으로 구성되었으며, 아이겐 값은 1.991, 설명분산은 11.064%로 나타나 고등학교 요인으로 최종 선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여섯째, 개인 요인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의 결과에 따르면, 3개의 문항(적성, 성적, 진로계획)으로 구성되었으며, 아이겐 값은 1.934, 설명분산은 10.746%로 규명됨으로써 최종적인 개인 요인으로 선정되었다.

또한 내적 일관성을 측정하기 위해 크론바 알파(Cronbach's Alpha) 계수를 통해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Nunnally(1978)는 사회과학 연구 분야에서 크론바 알파값(신뢰도 계수)이 0.60 이상이면 측정 도구의 신뢰성에 문제가 없는 것

으로 보았다. 본 연구에서 크론바 알파값은 신뢰도 검증의 기준치인 0.6 이상을 초과한 최소 .711에서 최대 .920 수치를 도출하여 신뢰도 역시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여러 기준들을 근거로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본 연구의 측정모형은 타당성 및 신뢰도 모두 확보되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

4.4 상관관계 분석

본 연구에서 선정된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실시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첫째, 개인 요인은 고등학교 요인과 $r = .452$ 의 가장 높은 정적(+)인 상관 수치를 도출하였으며, 다음으로는 가정 요인과 $r = .413$, 대학교 요인과 $r = .409$, 사회 요인과 $r = .395$ 의 유의미한 상관을 보여주었다.

둘째, 가정 요인의 경우, 고등학교 요인과 $r = .350$ 의 가장 높은 유의미한 상관 수치를 보여주었으며, 다음으로는 사회 요인과 $r = .336$, 전공 선택과 $r = .160$ 의 정적(+) 상관을 도출하였다.

셋째, 고등학교 요인은 대학교 요인과 $r = .423$, 사회 요인과 $r = .211$, 전공 선택과 $r = .157$ 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을 보여주었다.

<표 7> 상관관계 분석

요인명	개인 요인	가정 요인	고등학교 요인	대학교 요인	사회 요인	전공 선택
개인 요인	1					
가정 요인	.413**	1				
고등학교 요인	.452**	.350**	1			
대학교 요인	.409**	.104	.423**	1		
사회 요인	.395**	.336**	.211**	.212**	1	
전공 선택	.383**	.160*	.157*	.091	-.007	1

** $p < 0.01$, * $p < 0.05$

넷째, 대학교 요인은 사회 요인과 $r = .212$ 의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도출하였다.

이로써 선정된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봤을 때, 대부분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5 가설검증

본 연구의 가설검증은 독립변수인 개인 요인, 가정 요인, 고등학교 요인, 대학교 요인, 사회 요인이 종속변수인 전문대학교 문헌정보과 전공 선택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8>과 같다.

본 회귀식은 $R = .425$, $R^2 = .181$, 수정된 $R^2 = .160$, $F = 8.741$, $p = .000$, Durbin-Watson = 2.007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가설의 채택 여부 및 검증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설 채택에 대한 통계적 근거는 t값의 절대값이 1.96 이상이고, p값이 0.05보다 작으면 통

계적으로 유의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판단한다. p값에 별표(*)가 있으면 가설이 채택된 것을 뜻한다. 유의수준 95% 수준에서 가설이 채택된 경우에는 별표(*) 1개로서 $p < 0.05$, 유의수준 99% 수준에서 가설이 채택된 경우에는 별표(**) 2개로서 $p < 0.01$ 의 기호로 표현한다.

이를 토대로 본다면, 개인 요인은 전문대학교 문헌정보과 전공 선택에 t값 5.724($p < 0.01$)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사회 요인은 전문대학교 문헌정보과 전공 선택에 t값 -2.662($p < 0.01$)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로써 가설 H1(개인 요인)과 H5(사회 요인)가 채택되었다.

또한 독립변수의 표준화계수 베타값이 클수록 종속변수에 더 큰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간주한다. 개인 요인(.469)의 표준화계수 베타값이 사회 요인(-.191) 보다 크기에(절대값) 전문대학교 문헌정보과 전공 선택에 더 큰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t값의 절대값이 1.96 이하이고, p값이

<표 8> 개인 요인, 가정 요인, 고등학교 요인, 대학교 요인, 사회 요인이 전문대학교 문헌정보과 전공 선택에 미치는 영향 분석

종속변수	독립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p	공선성 통계량	
			B	표준오차	베타			공차	VIF
전문대학교 문헌정보과 전공 선택	(상수)		2.713	.377		7.197	.000		
	H1	개인 요인	.542	.095	.469	5.724	.000**	.617	1.621
	H2	가정 요인	.036	.071	.038	.509	.611	.744	1.344
	H3	고등학교 요인	-.001	.082	-.001	-.013	.990	.687	1.455
	H4	대학교 요인	-.067	.079	-.064	-.850	.396	.740	1.351
	H5	사회 요인	-.184	.069	-.191	-2.662	.008**	.803	1.246
통계량			$R = .425$, $R^2 = .181$, 수정된 $R^2 = .160$ $F = 8.741$, $p = .000$, Durbin-Watson = 2.007						

** $p < 0.01$, * $p < 0.05$

0.05보다 큰 H2(가정 요인), H3(고등학교 요인), H4(대학교 요인) 가설은 기각되었으며, 이를 통해 전문대학교 문헌정보과를 진학하는 학생들은 전공 선택을 하는데 있어서 외부 요인이 아니라 적성, 성적, 진로계획 등과 같은 개인 요인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채택된 가설의 세부적인 결과 및 주목되는 점을 살펴보면, 먼저 개인 요인은 전문대학교 문헌정보과 전공 선택에 t 값 5.724로 나타나 유의미한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개인 요인이 증가할수록 전문대학교 문헌정보과 전공 선택이 증가한다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즉, 개인 요인이 전문대학교 문헌정보과를 진학하는 학생들이 전공 선택을 하는데 있어서 지대한 영향을 미치며, 특히 개인 요인 중에서 적성, 성적, 진로계획 요인이 전공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외부 요인(부모, 지인, 교사 등)의 영향을 받기보다는 학생 개인의 적성이나 진로계획과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 전문대학교 문헌정보과 전공을 선택하는 경향이 강하며, 성적에 맞춰 전문대학교 문헌정보과를 진학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주목되는 점은 개인 요인이 증가할수록 전공 선택이 증가하는 것으로 검증된 결과로서, 개인 요인으로 인해 전문대학교 문헌정보과 전공 선택을 하게끔 유도하는 방안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다시 말해서, 문헌정보과에 대한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의 인지도가 일반적으로 낮기 때문에 대학 진학상담 시, 대학 및 학과 안내자료 및 홈페이지, 입시박람

회, 대학 주최의 진로직업체험 경험 등을 통해 대학입학지원 학생들에게 문헌정보과가 많이 노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학과 차원에서 학과 홍보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첫째, 대학 서포터즈와는 별도의 학과 서포터즈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이는 학생 개인 차원에서 재학 시절 활동한 마케팅 관련 경험을 통해 취업 스펙을 쌓을 수 있으며, 재학생 충원을 차원에서도 재학생들이 학과에 보다 자긍심을 갖게 함으로써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사실 입시박람회나 진로직업체험은 학생들이 참여하지 않는 경우도 많기에 기본적으로 대학입학지원 누구든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학과 홈페이지의 매력적인 인터페이스 구축과 신속한 콘텐츠 업데이트를 유지할 것을 제안한다.

셋째, 학과 홈페이지 이외에도 고등학생들의 주요 소통 채널인 학과 SNS(인스타그램, 유튜브 등)를 개설하여 운영할 것을 제안한다. 학과 SNS상에서 학과와 관련된 소식을 카드뉴스와 같은 이미지를 통해 제공함으로써 대학입학지원의 니즈를 충족시켜줄 뿐만 아니라 외부에 빠르게 정보전달을 확산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사회 요인은 전문대학교 문헌정보과 전공 선택에 t 값 -2.662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인 영향력을 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사회 요인이 증가할수록 전문대학교 문헌정보과 전공 선택은 감소한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사회 요인이 증가할수록 전공 선택이 감소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취업 전망 요인의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즉, 전문대학교 문헌정보과에 진학하는 학생들의 최근 입학 경향을 보면 만학도 학생의 증가, 20대 학생의 경우에는 전문대학교 졸업 후 바로 취업을 희망하기보다는 입학 당시부터 4년제 학사학위 진학을 목표로 전문대학교에 진학하는 학생들이 많아지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따라 취업 전망을 보고 전문대학교 문헌정보과에 진학하기보다는 만학도 학생은 학위취득, 20대 학생은 4년제 학사학위 진학(일반 대학교 편입, 평생교육원 학점은행제)을 목표로 전문대학교 문헌정보과에 진학하는 최근 입학 경향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결과로 보인다. 실제로 평생교육원 학점은행제 과정을 통한 사서 자격증 취득자의 비율은 2019년에 전체 중 19.8%를 차지하였으며,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도서관협회, 2021).

따라서 주목되는 점은 학령인구의 급감과 함께 평생교육 차원에서 국내 전문대학교 문헌정보과에 진학하는 성인학습자 및 만학도 학생들의 진학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해야 할 것이다. 전국 전문대학 만학도 수치가 2017년 5,997명에서 2021년 8,150명으로 5년 동안 35.9%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앞으로 만학도는 신입생이 줄어드는 전문대학에 대비와 같은 존재이다(대구 MBC, 2021).

2021년 명지전문대학은 미래융합학부 안에 문헌정보과를 신설하여 만30세 이상의 성인 및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로서 3년 이상 재직자에게 계속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전문학사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이제는 전문대학교 문헌정보과 대학입학자원으로서 20대 학생뿐만 아니라 검정고시나 학력인정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보다 적극적인 홍보와 입시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이러한 만학도 학생의 증가 및 전문대학교 졸업 후 편입을 희망하는 학생의 증가는 학과 운영 차원에서 장기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 이유는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 시에 신입생 및 재학생 충원율과 더불어 중요한 평가요소가 바로 취업률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서 취업 의지가 없는 만학도 학생과 전문대학교 졸업 후에 편입 공부를 해서 4년제 대학교에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의 경우, 개인의 능력(책 출판, 전시회 참여, 영상 제작 등)을 파악하여 집중적으로 지도함으로써 개인창작자로 연계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또한 4년제 대학교 편입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재학 시절부터 편입 공부를 시작하도록 지도하여 전문대학교 졸업과 동시에 4년제 대학교로 진학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제안한다.

나아가 이러한 전문대학교 입학생들의 추이를 반영하여 현재 대학교구조개혁 평가 시의 주요 평가지표인 취업률도 변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즉, 학령인구의 급감으로 정부 차원에서의 대학평가는 필요하지만, 대학평가의 잣대를 급변하는 대학사회에 발맞출 뿐만 아니라 보다 신뢰성 있는 측정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숙고해야 할 것이다.

5. 결 론

한국 사회에서 학령인구의 급감을 초래한 근본적인 동인(動因)은 저출산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저출산을 해결할 수 있는 특별한 묘

수가 없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이다. 이에 학령 인구 절벽으로 인해 향후 많은 대학들은 존재의 갈림길에 놓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특히 지방 대학과 전문대학의 타격은 더욱 클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대학입학자원의 감소에 따른 대학의 위기를 인식하고, 이를 대비하기 위한 유용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자 하는 목적으로 국내 전문대학교 문헌정보과에 진학하는 학생들의 전공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개인 요인, 가정 요인, 고등학교 요인, 대학교 요인, 사회 요인)이 무엇인지를 통계적으로 검증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개인 요인과 사회 요인이 전문대학교 문헌정보과 전공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으며, 사회 요인보다 개인 요인이 전문대학교 문헌정보과 전공 선택에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개인 요인은 전문대학교 문헌정보과 전공 선택에 t 값 5.724로 나타나 유의미한 정적(+)인 영향을 주는 반면에 사회 요인은 전문대학교 문헌정보과 전공 선택에 t 값 -2.662로 나타나 유의미한 부적(-)인 영향력을 주는 것으로 규명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도출할 수 있는 첫 번째 시사점은 개인 요인이 증가할수록 전공 선택이 증가하는 것으로 검증되었기에 개인 요인으로 인해 전문대학교 문헌정보과 전공 선택을 하도록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학과 홍보가 중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는 비단 우리나라 문제만이 아니다. 미국 대학사회 역시 학령인구 감소가 지난 10년간 무려 13%의 비율을 기록했으며, 이로 인해 운영 위기에 몰린 미국의 대학들은 한 해에만 수십억 달러 이상을 대학 마케팅에 지출하고 있

다는 통계가 보고되었다(최이현, 2021).

따라서 실질적인 학과 홍보 방안으로서 학과 서포터즈의 구성, 매력적인 인터페이스에 정보 업데이트가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학과 홈페이지 운영, 학과 SNS(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운영 등을 제안한다. 이는 대학입학자원의 니즈를 충족시켜줄 뿐만 아니라 빠른 정보확산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입시 차원에서 학과를 홍보하는데 상당히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시사점은 사회 요인이 증가할수록 전공 선택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 원인은 취업 전망 요인의 영향으로서 이는 최근 전문대학교 문헌정보과의 입학 경향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즉, 취업 전망이 대학진학 시 중요치 않은 만학도 학생의 증가 및 20대 학생의 경우 입학 당시부터 4년제 학사학위 진학(일반 대학교 편입, 평생교육원 학점은행제)을 목표로 전문대학교 문헌정보과에 진학하는 학생들이 많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앞으로 평생교육 차원에서 국내 전문대학교 문헌정보과에 진학하는 성인학습자 및 만학도 학생들의 진학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고, 전문대학교 문헌정보과의 중요한 대학입학자원으로 부상(浮上)하고 있는 검정고시나 학력인정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보다 적극적인 홍보와 입시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이러한 취업 의지가 없는 만학도 학생의 증가 및 전문대학교 졸업 후에 편입 준비를 해서 4년제 대학교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의 증가는 대학구조개혁 평가 시에 학생 충원율과 함께 취업률도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장기적인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

다. 또한 학과 운영 차원에서 만학도 학생을 위한 학업 지원 및 정서적 지원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 즉, 변화하는 입학생들의 추이에 신속하게 대응하며, 학생 중심의 질 높은 교육 및 학과 운영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결과가 각 대학 및 학과에 잘 전달되어 향후 국내 전문대학교 문헌정보과들이 대학입학자원의 감소에 대비하기 위한 유용한 기초자료로 활용됨으로써 우리나라 전문대학교 문헌정보과의 발전 및 새로운 도약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고대한다.

참 고 문 헌

- 강신철 (2021. 05. 10.). 학령인구 감소, 핑계가 될 수는 없다. 교수신문, 출처: <http://www.kyosu.net/news/articleView.html?idxno=66514>
- 국회입법조사처 (2021). 지방대학 신입생 충원 현황과 정책 및 입법과제 (NARS 현안분석 제204호).
- 박상은, 서봉언 (2017). 지방 고등학생의 대학진학 포부에 있어 지역선택 결정요인: 가정배경과 학교의 영향력. *교육사회학연구*, 27(3), 29-56. <http://doi.org/10.32465/ksocio.2017.27.3.002>
- 박성미 (2003). 고등학교 3학년의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경로 분석. *상담학연구*, 4(1), 83-96.
- 성도경, 이환범, 이수창, 장철영, 최인규 (2011). SPSS 알기 쉬운 통계기법의 활용. 대구: 대명.
- 손윤희, 이신혜 (2019). 대학생들의 대학 및 전공 선택 요인 유형 분석: 잠재전이분석을 이용한 진로정체감 유형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진로교육연구*, 32(3), 139-157. <http://doi.org/10.32341/JCER.2019.09.32.3.139>
- 손은정, 우애자 (2003). 중등학생들의 과학과 관련된 진로 선택에 영향을 주는 요인 분석. *교과교육학연구*, 7(2), 113-123.
- 윤영균 (2021. 09. 13.). 대구 MBC 뉴스, 출처: <https://dgmbc.com/article/Su61M4yyTgqvEA>
- 이상준 (2011). 고등학생의 진로교육 참여결정요인과 그 효과성에 관한 연구: 대학 전공학과 선택을 중심으로. *교육문화연구*, 17(2), 385-408. <http://doi.org/10.24159/joec.2011.17.2.385>
- 이수영, 이영민, 이재훈 (2009). 특수목적고등학교 학생들의 대학 전공계열 진학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과학고와 외국어고를 중심으로. *교육종합연구*, 7(2), 1-25.
- 정정화, 노보람 (2019). 청소년기 진로정체감 발달 유형 및 예측요인과 대학 전공선택 동기의 차이 분석. *청소년학연구*, 26(12), 277-303. <http://doi.org/10.21509/KJYS.2019.12.26.12.277>
- 최이현 (2021. 10. 06.). <글로벌 pick> 대학들이 마케팅에 수십억 달러를 쓰는 사연? EBS 뉴스, 출처: <https://news.ebs.co.kr/ebsnews/allView/60114404/N>

한국도서관협회 (2021). 2020 한국도서관연감.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한수정, 김미란 (2017).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의 융복합적 간호대학 진로선택 요인 분석. 한국융합학회논문지, 8(11), 109-114. <https://doi.org/10.15207/JKCS.2017.8.11.109>

Nunnally, J. C. (1978). Psychometric Theory. 2nd ed. New York: McGraw Hill.

• 국문 참고문헌에 대한 영문 표기

(English translation of references written in Korean)

A Surge of Old College Students. (2021. 09. 13.). Daegu MBC News, Available:
<https://blog.naver.com/dgmbcdigital/222503926238>

Choi, L. H. (2021. 10. 06.). <Global pick> Why Universities Spend Billions of Dollars on Marketing? EBS News, Available: <https://news.ebs.co.kr/ebsnews/allView/60114404/N>

Han, S. J. & Kim, M. R. (2017). Convergence analysis of nursing choice factors in senior high school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8(11), 109-114.
<http://doi.org/10.15207/JKCS.2017.8.11.109>

Junh, J. H. & No, B. R. (2019). Analyzing latent profiles, predictors of vocational identity in adolescence, and selecting factors of academic major. Korea Youth Research, 26(12), 277-303. <http://doi.org/10.21509/KJYS.2019.12.26.12.277>

Kang, S. C. (2021. 05. 10.). The sharp decline in the school-age population cannot be an excuse. Professor Newspaper, Available:
<http://www.kyosu.net/news/articleView.html?idxno=66514>

Korea Library Association (2021). 2020 KOREA LIBRARY YEAR BOOK. Seoul: Korea Library Association.

Lee, S. J. (2011). A study on its effect and participation's decision for career education of youth. Education and Culture Research, 17(2), 385-408.
<http://doi.org/10.24159/joec.2011.17.2.385>

Lee, S. Y., Lee, Y. M., & Lee, J. H. (2009). Identifying the influential factors that affects science and foreign language high school students in selecting major fields of universities. The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7(2), 1-25.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2021). The Actual Condition of Recruitment of Local Universities, Policy and Legislative Task. (NARS Analysis of Issues No.204).

Park, S. E. & Seo, B. E. (2017). Determinants of local choice of university in educational aspiration: Focus on influences of family background and school factors. Korean Journal

- of Sociology of Education, 27(3), 29-56. <http://doi.org/10.32465/ksocio.2017.27.3.002>
- Park, S. M. (2003). The path analysis of variables effecting career decision-making of high school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4(1), 83-96.
- Son, E. J. & Woo, A. J. (2003). Analysis of the factors affecting the students' career choice related to science. *Journal of Research in Curriculum & Instruction*, 7(2), 113-123.
- Son, Y. H. & Lee, S. H. (2019). The analysis of choice of university and major among undergraduate students: focusing on the relationship to career identity by using the latent transition analysis.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32(3), 139-157. <http://doi.org/10.32341/JCER.2019.09.32.3.139>
- Sung, D. K., Lee, H. B., Lee, S. C., Jang, C. Y., & Choi, I. K. (2011). *SPSS Utilization of Easy-to-Understand Statistical Techniques*. Daegu: Daemyung.